

# 구름과

2015 09 통권 443호







백북스 회원들이 모임을 끝내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또다시 시작되는 백북스의 이야기

옛날 옛적에 이야기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고  
끝나자  
시작되었다.

- 바스코 포파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 중 -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아직 가을은 시작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서둘러 여름이 물러나고 있었고, 나는 하루가 다르게 짧아지는 해를 뒤로하고 백박스 강연을 들으러 갔다. 그날은 《김탁환의 쉼이크》 강연이 있는 날이었다. 소설가이자 탁월한 이야기꾼으로 유명한 작가는 다년간 축적해온 본인만의 영업비밀(?)이라며 그가 쓴 책과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강연은 뒤풀이 자리까지 이어졌다.

처음에는 대전에 사람들이 함께 책을 읽고 저자까지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모임이 있다는 것만 알고 찝찝 찝찝 참석했다. 매번 강연만 듣고 돌아왔는데 그날은 얼굴이 익고 눈인사 나누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낮가림 심하고 소심하던 내가 용기를 내어 뒤풀이까지 참석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백박스의 팬이 되었다.

책을 읽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4년간 100권의 책을 읽게 하자는 목표가 백박스의 첫 시작이었다. 내가 모임에 나가기 시작할 무렵인 2011년에는 이미 모임이 생긴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 사이 모임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나이를 불문하고 폭넓은 연령층에게 널리 열려 있었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었다. 해를 거듭하며 백박스는 대전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독서학습공동체로 자리잡았고, 그 터전에서 ‘열린, 균형, 평생, 친화’의 의미를 충실히 실천했다. 잘 다져진 기반위에 기둥이 반듯하게 우뚝 서듯이 정기모임 이외에도 경제경영, 인문고전, 생물학, 예술, 건축, 사진, 철학 등 여러 소모임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백박스가 아니었다면, 역사학자 이덕일의 역사 속 사건도, 플루티스트 박은아의 아름다운 연주도, 시골의사 박경철의 감동적인 일화도, 철학자 강신주의 시인 김수영에 대한 애뜻함도, 남극 전문가 장순근의 펍권 이야기도, 시인 강은교의 바리공주 이야기도, 기업인 조용래의 계족산 황토길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책으로만 만나는 세상과 다르게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는 세상은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감칠맛을 더한다. 강연자들이 준비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책과 이어

지는 듯 이어지지 않는 듯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눈을 마주하며 함께하는 시간 동안 강연자의 이야기는 마법이 되었고, 언제나 그렇듯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하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마음이 향하게 하는 백박스의 힘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물론 책이 지닌 힘이 막강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책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또 다른 이야기가 도란도란 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마다 주제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백박스의 소모임들을 모두 참석해보지는 않았지만 몇몇 소모임에 참여하고 난 후 느낀 공통점이 있다. 함께 책을 읽고 생각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움의 즐거움과 사람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김탁환의 쉼이크》의 한 구절인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아낀다는 뜻이죠.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목소리로 빛을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아직 띄울 편지가 남았다는 뜻이고,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당신이 준비한 시간으로 기꺼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 나라의 행복을 믿습니다.” 라는 말처럼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책의 기운과 더불어 사람의 온기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시 또 한 번의 여름이 끝나는 듯 또 다른 가을이 시작되는 듯한 어느 날에 서있다. 그리고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고 끝나자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백박스의 다음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

글·사진 백박스 정남수

#### 백박스 모임 안내

홈페이지 [www.100books.kr](http://www.100books.kr)

이메일 [webmaster@100books.kr](mailto:webmaster@100books.kr)